

16세기 갑옷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Fashion Design with Application of Armour in the 16th century

박 선 영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Seon-Yeong Park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1. 서론

2. 갑옷을 응용한 현대 패션

3. 16세기 갑옷의 구조 분석

- 3.1.막시밀리안 갑옷
- 3.2.에뵈리에르가 부착된 보병 결투갑옷
- 3.3.보강보호재가 부착된 토너먼트 갑옷
- 3.4.군인의 슬래시 장식 갑옷

4. 갑옷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창작

- 4.1. 비사쥬를 응용한 디자인
- 4.2. 플랫 주름과 비사쥬를 응용한 디자인
- 4.3. 에뵈리에르를 응용한 디자인
- 4.4. 판금의 조합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
- 4.5. 보강보호재를 응용한 디자인
- 4.6. 슬래쉬를 응용한 디자인
- 4.7. 비사쥬와 슬래쉬를 응용한 디자인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16세기 서양의 갑옷을 소재로 하여 현대 패션의상을 창작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선정된 갑옷의 구조를 분석한 후 특징들을 응용하여 8개의 의상을 창작하였으며 아도베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16세기 갑옷은 조각적인 형태, 장식적인 외형, 과학적인 조합구조, 방호적 기능, 그리고 관능미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디자인에 응용된 소재는 막시밀리안 갑옷의 플랫 주름(골진 세로 주름)과 비사쥬(겨드랑이 보호대), 보병결투 갑옷의 판금 조합 구성과 에뵈리에르(어깨받이), 토너먼트 갑옷의 보강보호재, 그리고 직업군인 갑옷의 슬래쉬 등 이다. 연구결과, 갑옷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조형의상을 디자인하는데 무한한 창의성을 제공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갑옷, 패션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fashion costume with application of armour in the 16th century. The provinc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a particular armours and show the creative fashion costume with application of a peculiarity through a graphing and illustration by Adobe Illustrator. It is also to analyze sculptural and decorative features, scientific structure, the ability in terms of protection and voluptuous beauty.

The materials of the design are the German fluted decoration and besagew of Maximilian armour(shoulder defense), struture of pieces of plate and epauliere of foot combat armour, slashed armour of professionals, and reinforcement of tournament armour. Therefore an armour is an attractive material which gives creative possibilities in molding costume design.

Keywords

Armour, Fashion Design, Illustration

1. 서론

포스트모더니즘은 미학적 대중주의와 주체의 해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은 안과 바깥이 불분명한 안팎 경계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국적 자본주의 문화논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¹⁾ 프레드릭 제임스(Fredric Jameson, 1988)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특징을 미학적 대중주의, 문화 생산물의 깊이 없음, 역사성의 빈곤, 의미의 해체, 행복감의 만연, 재현 이데올로기의 약화 등으로 인해 개별주체가 소멸됨으로써 혼성모방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또한 예술가들은 원칙 없이 과거의 모든 스타일을 향수라는 매료 상태에서 조립하고 자극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역사주의에 의한 역사의 말소”라고 하였다.²⁾ 역사성의 위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안의 조직과 논리에 의해 의미사슬의 와해를 만들어 건축, 패션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주체 상실과 의미의 모호함을 가져왔으며 직접성, 우연성, 즉흥성 등의 요소가 혼합되어 텍스처와 재료, 형식면에서 재구조화를 가져왔다. 건축에서는 마분지 가구처럼 거칠고 조잡한 표면의 탈구조적인 형태에서 미완성의 미학이 창조되었다.³⁾ 반면 의상에서는 건축물과 같은 입체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에서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는 등 건축과 의상 영역의 개별 주체가 해체되어 혼성모방을 만들어내었다. 금속조각, 깨진 돌, 가벼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조잡하고 하찮은 구성물의 조합에서 재미와 유머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깊이 없는 문화 생산물에서 행복은 만연되었다. 로베르토 카푸치(Roberto Capucci)와 티에리 뮈그러(Thierry Mugler), 장 폴골티에(Jean Paul Gaultier)에 등과 같은 창의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은 기하학적인 개념을 의상에 도입하여 독특한 조형미를 창조하였으며⁴⁾ 과거 역사의 구성과 과학적 요소를 혼합 시킴으로서 재현 이데올로기를 해체시켰다. 값싼 플라스틱과 비닐로 과거 역사 금속의 중후한 외형을 모방하였고 견고한 금속의 재질로 조합된 새로운 창조물 또한 과거의 중후함을 잃어버렸

다. “역사주의에 의한 역사의 말소”가 디자이너들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더 이상 역사성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기괴함과 부조화의 새로운 창조물이 생겨날 뿐이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섞여진 미완성의 오브제는 즐거움과 유희를 제공하는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실체로 창출되었다. 과거 역사의 중세 갑옷은 독특한 조형미를 창조하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패션 소재로 차용되기도 하였으며 고통에서 성적 쾌감을 받는 페티시스트(fetishist)들의 도착적 의상 소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로베르토 카푸치는 중세 갑옷의 조형적인 구조 형태를 응용하여 조각같은 이브닝 드레스(evening dress)를 창조하였으며 티에리 뮈그러, 장 폴골티에는 갑옷의 견고한 금속의 형태와 재질을 응용하여 관능성이 부여된 미래의상을 창출하였다.

갑옷에 대한 연구논문은 박선영(2010)의 “중세 갑옷 디자인의 구조 분석”과 조현진, 김영삼, 정홍숙(2004)의 “11-15세기 중반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이 있으나 갑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논문은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갑옷의 조각물같은 구조적인 형태와 심미성, 견고한 재료들의 과학적인 조합 방법을 패션의상에 응용하여 조형적이고 예술적인 의상을 창작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로베르토 카푸치와 티에리 뮈그러, 장 폴골티에 작품을 중심으로 갑옷의 형태를 차용한 현대 패션을 조사하였다. 둘째, 선행 논문에서 중세기 갑옷의 용도별 구조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6세기에 제작된 판금갑옷 중 특징적인 4개의 갑옷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갑옷은 비사쥬(besagew)⁶⁾가 부착된 막시밀리안(Maximilian)갑옷, 에뮈리에르(epauliere)⁷⁾가 부착된 보병 결투(foot combat)갑옷, 군인(professionals)들의 슬래쉬(slash)장식 갑옷, 보강보호재(reinforcement)가 부착된 토너먼트(tournament)갑옷이며 다리 갑옷과 투구를 포함하지 않은 상의 갑옷을 중심으로 각각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였다. 셋째, 선정된 갑옷의 구조 분석을 토대로 갑옷의 특징들을 분석한 후 각각을 응용한 조형적인 패션의상 8개를 디자인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갑옷의 형태를 응용한 해외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은 관련 논문 참조 및 해외서적

1) 정정호, 강내희(1996).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문화과학사, 17-19.

2) Fredric Jameson(1988) The Ideologies of Theory. 2.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3) 이일형(2007). 프랭크 게리. 서울: 살림, 37-43.

4) 변미연, 이언영, 이인성(2006). 디자이너 장폴 골티에의 페티시즘에 관한 패러다임. 16(6).

5) 최경옥, 추미경, 홍정화 (2007). 장 폴골티에의 작품세계에 표현된 해체주의적 경향. 복식문화연구. 15(2). 326-338.

6) 16세기 갑옷에 부착된 겨드랑이 보호대를 말할

7) 16세기 갑옷에 부착된 어깨받이

등을 통해 조사되었다. 또한 갑옷에 대한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는 국내 선행 연구 논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외 서적 및 문헌, 해외 박물관과 도서관, 국내외 갑옷 연구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실제 갑옷 사진을 분석한 후 16세기 갑옷의 구조를 각 부위별로 도면화하여 설명과 분석을 하였다. 또한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창작된 갑옷을 응용한 8개의 작품들은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되었다. 도면화된 갑옷의 구조 그림6,7,9-13,15,17 및 창작패션 의상 표1의 그림18-24는 아도베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CS3)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2. 갑옷을 응용한 현대 패션

이태리 디자이너 로베르토 카푸치는 대상의 단순한 묘사보다는 구축적인 형태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며⁸⁾ 전혀 이질적인 재료와 색채의 결합을 통한 실험적 연구를 보여주었다.⁹⁾¹⁰⁾ 그의 의상들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실루엣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¹¹⁾ 귀리오 마치(Giulio Machi)는 로베르토 카푸치는 금속을 다루는 것처럼 실크를 바느질하며 청동을 제련하는 것처럼 실크를 다룬다고 하였다.¹²⁾ 로베르토 카푸치는 과거의 역사성과 순간의 정서를 혼합시킴으로써 우연성의 혼성모방에서 오는 미를 창출하였다. 새로운 미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역사성의 빈곤과 의미의 해체를 의미하고 역사성의 내재적 표현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유희와 감동을 주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 산물들은 기하학적이고 구축적인 작품 세계를 창출하였던 로베르토 카푸치에게 의미있는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갑옷의 건축물과 같은 구조적인 형태는 이브닝 드레스와 결합되어 이질감에서 오는 우연의 아름다움을 창출하였다. 그림1과 그림2는 2009년 스위스 바젤(Basel) 텅거리(Tinguely) 박물관 'Armour and Evening Dress'전에 전시된 작품들이다.¹³⁾¹⁴⁾ 그림1은 건축과 기하학적 구성에 기

초한 특별한 재단 기술로 아름답고 리듬감있게 표현되었다. 실크는 청동의 재질같이 견고하게 지탱되었으며 갑옷의 구축적인 형태가 패브릭(fabric)속으로 용해되어 기품있고 우아하게 창출되었다.



[그림1] 로베르토 카푸치,2009, <http://news.naver.com>

[그림2] 로베르토 카푸치,2009, <http://news.naver.com>

[그림3] 티에리 뮈그러,1995, *Extreme Beauty*, p.84

[그림4] 장 폴골티에,1984, *Extreme Beauty*, p.61

그림2는 톤렛 슈트(tonlet suit)라는 보병들의 벨형(bell-shaped)의 판금 스커트 갑옷을 이브닝 드레스에 적용하였다. 이 갑옷은 스커트의 하부가 넓어서 주변을 넓게 둘러싸기 때문에 복부와 신체의 하부를 창이나 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갑옷의 하부인 테셋(tasset)¹⁵⁾은 길고 좁은 판금 조각들이 이동식 리벳(sliding rivets)으로 연결되어 상하로 움직임이 가능하였다.¹⁶⁾ 로베르토 카푸치의 이브닝 드레스는 움직임에 따라 주름은 각각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다르게 움직임으로써 가변적인 실루엣이 형성되지만 전체는 건축물과 같이 구축적이다.

티에리 뮈그러는 전혀 다른 소재와 구성 요소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창조하였다.¹⁷⁾¹⁸⁾ 르네상스 시대의 갑옷이라는 과거 역사성의 산물은 자유와 관능성이 부여되어 전위적인 예술의 상으로 표출되었다.¹⁹⁾ 그림3은 판금 갑옷의 재질과 조합의 구조, 의도적인 슬래쉬와 구멍의 노출을 통해 성적 환상을 주는 페티쉬 패션으로 재창조되었다. 과거 역사성과 과학적 요소가 단순화되어 유기적으로 혼합되었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역사성의 파괴이며 재현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의미한다. 패션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소재들의 조합, 과대한 노출, 기본 디자인과 착용형태의 파괴 등으로 표현된다.²⁰⁾

8)장애란, 박명희(1995). 건축학적 의상디자인의 기호학적 연구. 복식. 25,215-232.

9)Roberto Capucci.(1991). *Roben wie Rustungen*. Vienna: Kunsthistorisches Museum.

10)Roberto Capucci.(2009). *The exhibition 'Armour and Evening Dress'*. Basel, Switzerland: the museum Tinguely.

11)이서희(2009).로베르토 카푸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각적 조형성 특성.Design Forum.22,109-119.

12)Roberto Capucci.(2001). *Timeless Creativity*. Milan:Skira.25

13)<http://news.naver.com>

14)<http://news.naver.com>

15)갑옷의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늘이는 방호구

16)Charles Ffoulkes(2005).*Armour & Weapons*, Pennsylvania: Westhome Publishing,LLC,78.

17)주소현,이경희(2001),Thierry Mugler 의상에 나타난 조형미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 3(3),219-226.

18)김경의, 김명숙(2006).Thierry Mugler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징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과학회지. 9(40), 27-39.

19)Harold Koda.(2001), *Extreme Beauty*.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84.

20)최경옥,추미경,홍정화 (2007). 장 폴골티에의 작품세계에 표현

장 폴골티에의 작품들은 이질적인 요소 및 경향들을 서로 조합하여 유머러스하고 대담하게 표현되었다.²¹⁾ 그림4의 원추 형태의 브라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영감을 얻어 재창조된 것이다.²²⁾ 이 작품은 갑옷과 코르셋을 혼합시킨 형태로 가슴 부위의 방사선 형태의 원뿔은 주름잡기 기법으로 선의 교차와 겹침을 통한 율동적 표현으로 새로운 표면 재질감을 창출하였으며 금속재질의 무기는 도발적인 성적 유혹의 도구로 재창조되었다.

3. 16세기 갑옷의 구조 분석

3.1.막시밀리안 갑옷

서양의 갑옷은 BC 5세기 이후 켈트족에서 유래된 사슬갑옷이며 14세기까지 서유럽의 주요한 갑옷으로 입혀졌다.²³⁾ 13세기경에는 각각의 금속판들이 리벳(rivet)으로 연결된 판금갑옷이 제작되었으며 신체의 중요 부분에 사슬갑옷위에 착용하였다.²⁴⁾ 14세기이후에는 금속 제련기술이 보다 발달하면서 한 벌 전체가 금속판으로 제작된 판금갑옷(plate armour)이 대중화되었다.²⁵⁾ 그림5는 막시밀리안 갑옷으로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최후의 기사라고 칭한 막시밀리안 1세에 의해 전용의 갑옷공장에서 만들어진 갑옷으로 1530년까지 많이 입혀졌다. 막시밀리안 갑옷은 갑옷 표면에 플루트(flute)이라고 불리우는 좁고 긴 세로 주름이 물결모양으로 가공되어 창이나 활 등의 무기가 그 홈으로 빗겨가도록 제작된 아름다우면서 경량화된 실용적인 갑옷이었다.²⁶⁾ 이 갑옷의 투구는 전면을 가리게 되어있으며 가로로 긴 틈이 있어서 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어깨와 팔, 손 부위, 태셋은 각각의 강철 조각이 겹쳐 리벳으로 연결되어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다. 겨드랑이와 가슴부위에는 비사주라는 방사능 형태의 사선들이 새겨진 커다란 원형의 금속판이 부착되어있으며 원판 중심에는 금속 사각뿔이 돌출되어있어 칼이나 창들이 빗겨나가게 함으로써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²⁷⁾(그림7),

된 해체주의적 경향. 복식문화연구.15(2).326-338.

21)구인숙(1995).장폴골티에의 작품세계와 전위 패션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8(1).

22)이의정, 양숙희(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178.

23)<http://timeline.britannica.co.kr/>

24)조현진, 김영삼, 정홍숙.(2004). 11-15세기 중반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영향. 한국복식학회.54(4), 27-40.

25)이내주(2006). 서양 무기의 역사. 서울: 살림, 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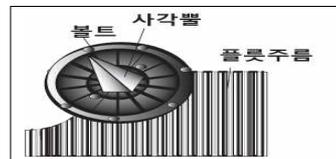
26)chchawa sadawalu(2000). 무기와 방어구(서양편), (남혜승역). 서울: 들녘, 278-279.

손에는 미턴 곤트렛(mitten gauntlet)이라는 쇠로 만든 장갑모양의 보호대를 착용하였다.(그림6)



[그림5] 막시밀리안 갑옷,1530, Knight, p.14

[그림6] 막시밀리안 갑옷의 구조



[그림7] 비사주의 구조

3.2.에펠리에르가 부착된 보병결투용 갑옷

그림8은 1555년 제작된 보병 결투용 갑옷으로 울타리(barrier)를 사이에 두고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하부에는 갑옷을 착용하지 않았다.²⁸⁾ 이 갑옷의 특징은 에펠리에르라는 어깨 보호대가 반원형의 가림판 형태로 돌출되어있어 옆에서 날아오는 창이나 칼의 공격으로부터 상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²⁹⁾.(그림9),(그림10)

갑옷의 어깨 부위인 빨드론(Pauldron)은 가죽위에 여러 개의 금속조각을 겹쳐지게 한 후 양옆을 리벳으로 고정시켜 활동이 가능하게 제작되었으며 팔 부위인 뱀뿔레이스(vambrace)와 연결되었다.(그림11) 빨드론의 상위는 각각의 금속 조각이 고정식 리벳(articulating rivet)으로 고정되고 원통형의 팔 부위는 이동식 리벳으로 연결되었다.³⁰⁾ 이동식 리벳은 회전이 가능한 대갈못으로³¹⁾ 상위 뱀뿔레이스와 팔

27)Angus Patterson(2009).Fashion and Armour in Renaissance Europe.V& A Publishing, 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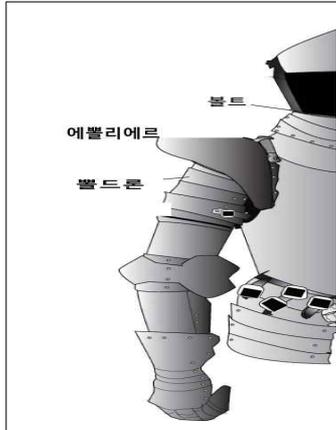
28)Gravett Christopher.(2003). Knight . London: Dorling Kindersley Limited,47.

29)<http://www.khm.at/en/neue-burg/collections/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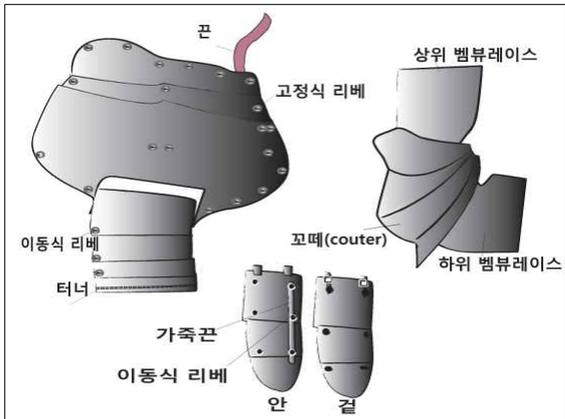
30)박선영(2010).중세갑옷 디자인의 구조분석. 디자인학 연구. 87(23).

31)<http://en.wikipedia.org/wiki/Rivet>

꿈치, 하위 뱀부레이스는 갑옷 내부에서 가죽 끈으로 연결되어 이동식 리벳으로 고정되었다.³²⁾(그림13)



[그림8] 보병결투갑옷, 1555, <http://www.khm>
 [그림9] 보병결투갑옷의 구조
 [그림10] 16세기 에블리에르의 구조



[그림11] 뱀부레이스와 뿔드론의 구조
 [그림12] 꼬떼의 구조
 [그림13] 이동식 리벳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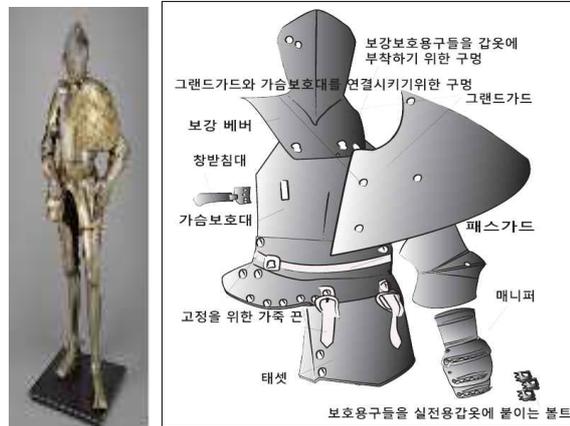
두 부분으로 분리된 원통형의 상위 뱀부레이스는 터너(tuner)방식으로 연결되어 고정되며 윗 부분은 뿔드론과 이동식 리벳으로 고정되었다.³³⁾(그림11) 팔꿈치 부위에는 꼬떼(couter)라고 불리는 팔꿈치 가리개가 구부러진 모양으로 따로 부착되었다.³⁴⁾(그림12)

3.3.보강보호재가 부착된 토너먼트 갑옷

12세기경에 생겨난 토너먼트는 군사들의 전쟁 훈련을 위해 생겨진 경기였으나 15세기경에는 왕이나 귀족들 앞에서 기사들의 전투 기술과 용기를

32)Charles Ffoulkes (2005).Armour & Weapons. Pennsylvania:Westholme publishing. 58.
 33)http://cafe.naver.com/amorac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4
 34)박선영(2010).중세갑옷 디자인의 구조분석. 디자인학 연구. 87(23).

를 자랑하는 사회적 행사로 발전하였다.³⁵⁾ 시합은 창을 든 기사들이 말을 탄 채 서로 돌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³⁶⁾ 토너먼트 갑옷은 전투용이 아니라 경기용 갑옷이므로 활동성 보다는 강력한 방어 효과가 요구되었으며³⁷⁾ 특히 돌진할 목표가 되는 왼쪽부분은 특별한 보강보호재(reinforcement)가 필요하게 되었다.³⁸⁾³⁹⁾ 얼굴과 목, 가슴은 그랜드가드(grandgard)라는 금속판으로 제작된 보강보호재를 부착하였으며 왼쪽 팔에는 파스가드(pasgard)라는 팔 보강보호재, 손에는 매니퍼(manifer)라는 보강보호재가 필요에 따라 갑옷 위에 볼트(bolt)로 탈부착 되었다.(그림14), (그림15) 왼쪽 가슴과 어깨에 부착되는 그랜드가드는 반소매인 볼레로 자켓 형태와 단순한 넓은 판으로 된 솔 형태 등이 있으며 목 아래와 가슴보



[그림14] 보강보호재가 부착된 토너먼트 갑옷, 1548, <http://www.khm>

[그림15] 보강보호재의 구조

호대 위에 볼트로 고정되었다.⁴⁰⁾(그림14),(그림15) 목과 턱을 보호하는 보강 베버(bevor)는⁴¹⁾ 어깨에 볼트(bolt)로 고정되었다.⁴²⁾ 가슴보호대에는 창을 넣을 수 있는 고정대가 부착되어 있었다.⁴³⁾(그림15)

3.4. 군인의 슬래시 갑옷

35)Michell Baium(1993).무기와 갑옷. 서울: 웅진미디어,30-31.
 36)Steven Muhlberger.(2002).Jousts & tournaments. United States by The Chivalry Bookshelf,19-25.
 37)Angus Patterson(2009).Fashion and Armour in Renaissance Europe.V& A Publishing. 17.
 38)Boutell Charles.(2002). 무기의 역사(Arms and Armour in antiquity and the middle ages). (박광순 역). 서울: 가람기획, 202-205.
 39)<http://www.medieval-spell.com/Medieval-Tournaments.html>
 40)<http://www.khm.at/en/neue-burg/collections/>
 41)목과 하위안면을 보호하기 위한 금속으로 만든 보호대
 42)<http://en.wikipedia.org/wiki/Bevor>.
 43)Gravett Christopher.(2003). Knight . London: Dorling Kindersley Limited,45.

의상에서는 노출을 통해 성적부위를 직접 드러냄으로써 성적 매력을 표현하려 하였으며 슬래쉬, 슬릿(slit), 구멍 뚫기 등의 기법을 통한 최소한의 노출은 숨겨진 것에 대한 인간의 관음증적 심리를 자극하는 에로티시즘적인 표현방법으로⁴⁴⁾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패션 의상에 많이 사용되어왔다. 슬래쉬의 초기 형태는 15세기 말 소매 팔꿈치를 삼자형으로 절개하여 흰색 속옷을 밖으로 내보이도록 한 것이다. 1520년대와 1530년대는 슬래쉬 기법이 널리 유행하여 목판과 소매, 바지, 신발 등 의복 전체에 무늬처럼 장식되었다.⁴⁵⁾ 그림16은 1520년대에 제작된 독일 군인의 갑옷으로 당시 유행하였던 슬래쉬 기법을 모방하여 갑옷 표면을 장식하였다. 갑옷의 슬래쉬는 금속 표면을 에칭한 후 다마스크전(damask)나 벨벳(velvet)처럼 보이도록 틈 사이를 금도금하여 슬래쉬 효과를 내었다.⁴⁶⁾(그림17)



[그림16] 퍼프와 슬래쉬된 갑옷, 1520, Knight, p.60



[그림17] 갑옷 슬래쉬의 제작

4. 갑옷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창작

16세기 르네상스 갑옷 중 막시밀리안 갑옷과 토너먼트 갑옷, 보병 결투갑옷, 군인의 슬래쉬 장식 갑옷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 들을 본 연구의 패션 디자인 창작에 응용하였다.

첫째, 막시밀리안 갑옷 표면의 플러트 주름은 독특한 재질감과 기능성을 지닌 것으로써 본 작품의 소재로 차용하였다. 또한 막시밀리안 갑옷 전면에 부착된 비사주의 기하학적인 조형성은 본 연구에서 재구성되어 창작되었다. 둘째, 보병 결투용 갑옷은 견고한 판금조각들이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합되었으며 이러한 특

징은 조각적이고 구축적인 예술 의상에 심미성과 동시에 기능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어깨 부위에 돌출된 빨드론의 입체적인 형태는 어깨를 강조하는 조형적인 패션 디자인에 응용되었다. 셋째, 토너먼트 갑옷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보호보강재들이 탈부착되며 이러한 가변성과 기능성을 창작에 차용하였다. 넷째, 16세기 초에 유행되었던 슬래쉬 기법은 인간내면의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며 이러한 노출 심리는 갑옷에서도 적용되었다. 본 작품에서는 구조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에 슬래쉬 기법을 적용하여 에로티시즘적인 긴장감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시밀리안 갑옷의 비사주와 플러트 주름, 군인 갑옷의 슬래쉬 효과, 보병결투 갑옷의 금속 조합구성의 형태와 에펠리에르, 토너먼트갑옷의 보강보호재를 응용하여 총 8개의 패션의상을 디자인하였다.(표1)

4.1. 비사주를 응용한 디자인

표1의 그림18은 기하학적이고 평면적인 다각형과 원으로만 구성된 비대칭 구성이지만 비사주의 형태를(그림7) 응용한 원형 부분은 방사능 모양으로 누벼져(quilting) 입체감을 주었으며 이는 조형물과 같은 구조적인 느낌을 주었다.

4.2. 플러트 주름과 비사주를 응용한 디자인

소매 둘레는 비사주(그림7) 형태를 응용하여 둘레 라인에 테두리를 겹쳐 방사능 형태의 원형으로 둘러져 있다. 플러트같은(그림7) 세로 주름은 겹치거나 펼쳐지면서 독특한 표면 재질감을 창출하며 비사주의 형태를 응용한 방사능 형태로 누벼진 원형 장식은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또는 해체되어 부착되어있다. 겹쳐진 주름들은 조각같이 구축적이지만 움직임에 따라 생겨나는 주름선의 율동미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 (표1의 그림19)

4.3.에펠리에르를 응용한 디자인

표1의 그림20은 어깨에 돌출된 에펠리에르를(그림10) 응용한 디자인으로 어깨가 강조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이며 어깨 부위는 원형의 에펠리에르 형태로 누빔 처리되어 입체적으로 돌출되어있다. 어깨선에 부착된 조각같은 에펠

44)조영한, 박현신(2004). 한국패션디자인학회.4(2).47-61. 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 속옷의 겹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45)신상옥(1988).서양복식사. 서울: 교학사.161.

46)Gravett Christopher(1996).중세의 기사.(미디어뱅크 역). 서울:웅진미디어, 60.

리에르는 팔의 동작에 따라 상하로 움직인다.

4.4.판금의 조합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

중세의 갑옷은 견고한 금속의 조각들이 리벳으로 조합되어 관절 부위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그림11) 표1의 그림21은 구축적인 조각물같은 디자인으로 몸판 부분은 5개의 기하학적인 평면도형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팔 부위는 견고하고 탄성이 적은 직물들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리벳과 같은 고정물로 연결되어있다. 각각의 조각들은 리벳들을 연결하는 긴 끈이 내부에 고정되어 형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동작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림13)

4.5.보강보호재를 응용한 디자인

표1의 그림22는 토너먼트 결투시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갑옷 위에 보강보호재들이(그림15) 탈부착시키는 원리를 응용한 작품이다. 표1의 그림22는 부분별로 분리되어 길이와 형태가 가변적이며 가슴 부위의 포켓도 탈부착된다.

4.6.슬래쉬를 응용한 디자인

표1의 그림23은 15세기 말과 16세기에 스위스와 독일에서 유행되었던 슬래쉬가(그림17) 갑옷 표면에 장식된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다섯개의 평면적인 사각형이 기하학적 구성으로 연결되었으며 각각의 연결부위에는 손의 노출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절개된 슬래쉬가 있다. 중심부에 장식된 여덟 개의 슬래쉬는 바디의 일부를 노출시킴으로써 에로티시즘적 환상을 준다.

4.7.비사쥬와 슬래시를 응용한 디자인

실루엣 전체를 비사쥬(그림7) 형태로 응용한 조각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이다. 비사쥬 중심의 각뿔은 윗부분에서 겹쳐지게 재단되었으며 절개된 둥근 구멍은 얼굴을 노출하기 위한 슬래쉬이며 원뿔의 끝부분은 모자가 된다. 각뿔 옆면에 세로로 절개된 트임은 슬래쉬(그림17) 형태로 장식된 16세기 갑옷 표면을 응용하였으며 슬래쉬를 통해 손을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다. 의상의 하부는 직물을 누빔으로써 입체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작은 비사쥬 형태의 입체적인 부착물들이 하단 둘레에 장식되어있다.(표1의 그림24)

[표1] 갑옷을 응용한 패션 의상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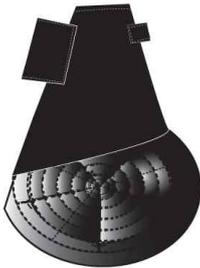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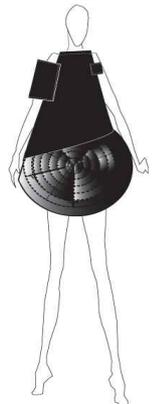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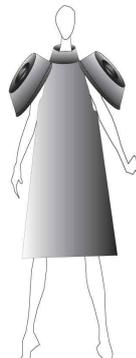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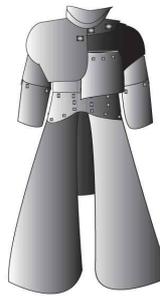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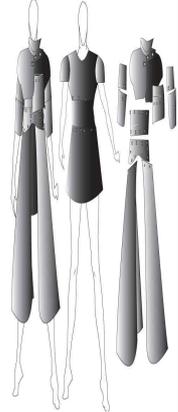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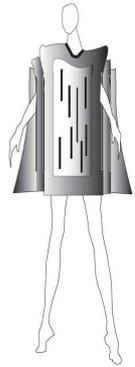
그림	응용	도식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18	비사쥬		
	특징	기하학적인 다각형과 원으로 구성된 비대칭 구성의 디자인	
그림 19	플러츠름과 비사쥬		
	특징	입체적인 재질감의 플러츠름과 방사능 형태의 비사쥬 형태를 응용한 조형적인 디자인	
그림 20	에폴리에르		
	특징	어깨 부위가 강조된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디자인	

그림 21	판금의 조합 형태		
	특징	여러 개의 작은 조각들이 리벳으로 연결되어진 소매와 5개의 큰 평면 도형으로 구성된 디자인	
그림 22	보강보호재		
	특징	부분별로 분리되는 길이와 형태가 가변적인 디자인	
그림 23	슬래쉬		
	특징	기하학적 구성의 사각형과 슬래쉬로 장식된 디자인	
그림 24	비사주와 슬래시		

특징	실루엣 전체를 비사주 형태로 응용한 조각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
----	------------------------------------

5.결론

본 논문은 16세기 갑옷의 구조를 분석한 후 그 특징들을 응용하여 조형적인 의상을 창작하였다.

첫째, 로베르또 카푸치와 티에르 뮤그리, 장 폴골티에 등은 갑옷을 응용한 조형적이고 구축적인 패션의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역사성과 현대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혼합되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미학이다.

둘째, 16세기 갑옷은 조각적인 형태, 장식적인 외형, 과학적인 조합구조, 방호적 기능, 그리고 관능미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셋째,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막시밀리안 갑옷의 비사주와 플러트 주름, 군인 갑옷의 슬래쉬 장식, 보병결투 갑옷의 금속 조합의 구성과 방호 기능인 에빨리에르, 토너먼트갑옷의 보강보호재를 응용하여 총 8개의 패션의상을 창작하였다. 즉, 막시밀리안 갑옷 표면의 플러트 주름과 비사주는 방호적 기능과 더불어 독특한 재질감과 심미적 조형성을 가졌으며 보병 결투용 갑옷의 판금 조각들의 과학적 조합 형태는 조각적이고 구축적인 예술 의상에 심미성과 동시에 기능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어깨 부위에 돌출된 빨드론의 입체적인 형태는 어깨를 강조하는 조형적인 패션 디자인에 응용되었으며 토너먼트 갑옷의 보호보강재들의 가변성과 기능성, 슬래쉬의 관능미 등이 차용되었다.

따라서 갑옷은 견고한 소재들의 과학적인 조합 구성이라는 면에서 패션 소재 선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으며⁴⁷⁾ 조각적이고 구축적인 형태, 장식성과 관능미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조형의상 디자인 발상에 창의성을 제공하는 소재이다.

본 연구는 고증을 통한 갑옷 구조의 정확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디자인 응용에 중점을 둔 논문으로써 주로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과 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성품 제작을 위한 상품성과 기능성, 경제성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까

47) 전통적으로 패션의상 소재는 봉제가 용이해야만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 고려하여 실제 제작을 위한 소재, 패턴과 재단, 봉제 등과 같은 부분까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경의,김명숙(2006).Thierry Mugler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40), 27-39.

-구인숙(1995).장폴골티에의 작품세계와 전위 패션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8(1).

-박명희,장애란.(1995). 건축적인 의상디자인 기호학적 연구. 복식, 25, 215-232.

-박선영(2010).중세갑옷 디자인의 구조분석. 디자인학 연구.87(23).

-변미연, 이언영, 이인성(2006).디자이너 장폴 골티에의 페티시즘에 관한 패러다임.16(6).

-신상옥(1988).서양복식사. 서울: 교학사.161.

-이내주(2006).서양 무기의 역사. 서울: 살림, 17-18.

-이서희.(2009).로베르토 카푸치(Roberto Capucci) 작품에 나타나는 조각적 조형성 특성. 한국디자인 포럼, 22, 109-118.

-이일형(2007).프랭크 게리. 서울: 살림,37-43.

-이의정.양숙희.(1998). 페티시즘. 서울:경춘사, 178.

-장애란, 박명희(1995). 건축학적 의상디자인의 기호학적 연구. 복식. 25,215-232.

-조영한, 박현신(2004).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속옷의 걸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 .4(2).47-61.

-조현진, 김영삼, 정홍숙.(2004). 11-15세기 중반 기사 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영향. 한국복식학회.54(4), 27-40.

-주소현,이경희(2001),Thierry Mugler 의상에 나타난 조형미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 3(3),219-226.

-최경옥,추미경,홍정화 (2007). 장 폴골티에의 작품세계에 표현된 해체주의적 경향. 복식문화연구. 15(2). 326-338.

-Bouchard Constance Brittain.(2005). 귀족과 기사도.(강일휴 역). 서울:신서원, 45.

-Boutell Charles.(2002). 무기의 역사(Arms and Armour in antiquity and the middle ages). (박광순 역). 서울: 가람기획, 202-205.

-Ichchawa sadawalu. (2000). 무기와 방어구(서양편), (남혜승 역). 서울: 들녘, 278-279.

-Gravett Christopher(1996).중세의 기사.(미디어뱅크 역). 서울: 웅진미디어, 45.

-Michell Baium(1993).무기와 갑옷. 서울: 웅진미디어,

어,30-31.

-Selden Samuel.(1993). 무대예술론. 서울: 현대미술사, 252.

-Timelife Books.(2004). 기사도의 시대. (김옥진 역). 서울: 가람기획, 93,98.

-Capucci Roberto.(2001). Timeless Creativity. Milan: Skira. 87.

-Ffoulkes Charles(2005).Armour & Weapons, Pennsylvania: Westhome Publishiong,LLC,58,78.

-Gravett Christopher.(2003). Knight. London: Dorling Kindersley Limited, 14,45,60.

-Harold Koda.(2001). Extreme Beauty.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61, 84.

-Jameson Fredric (1988)The Ideologies of Theory.2.Minneapolis: Univ. of Minnessoea Press.

-John, G. (1998). Medieval jousts and tournaements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5.

-Muhlberger Steven.(2002).Jousts & tournaments. United States by The Chivalry Bookshelf, 19-25.

-N. F. Stephen,(1998). Arms and armor. New York: Harry N Abrams Inc., 51.

-Patterson Angus(2009).Fashion and Armour in Renaissance Europe. S.Kensington London: V & A Publishion 17,,33-34.

-<http://news.naver.com/main/home.nhn>

-<http://en.wikipedia.org/wiki/Bevor>.

-<http://en.wikipedia.org/wiki/Rivet>

-<http://timeline.britannica.co.kr/>

-<http://www.arador.com/articles/chainmail.html>

-<http://www.flickr.com/photos/guildadosarmoreiros>

-<http://en.wikipedia.org/wiki/Armour>

-<http://www.metmuseum.org/home.asp>

-<http://www.arador.com/main/index.html>

-<http://www.khm.at/en/khm-home/>

-<http://www.medievalcollectables.com/>

-<http://www.fordham.edu/halsall/sbook.html>

-<http://mahan.wonkwang.ac.kr/link/med/society/class/knight/knights2.html>

-<http://cafe.naver.com/amoract.cafe>

-<http://www.costumes.org/history/100pages/militaryuniforms.htm>

-http://www.tinguely.ch/en/exhibition/ruestung_follow.html

-http://www.museum-joanneum.at/en/styrian_armoury

-<http://www.artdaily.com/index.asp>

-<http://www.iydo.co.kr/shop/main/index.php>